

종합·해설

민주 대선주자들 호남경선 앞두고 긴장감 고조

文 굳히기나, 非文 대역전이나

선거인단 23만명 수도권 제외 최대

사실상 대선 티켓 향해 결정 가능성

다음 달 1일(전북)과 6일(광주·전남) 치러지는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 진영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호남지역 선거인단이 23만명(광주·전남 13만9274명, 전북 9만5707명)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최대 규모인데다, 현재 경선이 완료된 제주, 울산, 강원 선거인단(6만1229명)의 4배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호남지역 순회 경선 결과가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을 굳힐 수 있는 것은 물론 거꾸로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의 '대역전극'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호남 경선은 전국 순회 경선 일정의 중후반에 위치한다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선 티켓의 향배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예비 후보 진영에서는 호남지역 경선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총동원하는 등 물러설 수 없는 한 판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대세론 굳히기=초반 경선에서 3연승을 거둔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호남지역 경선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 대세론을 굳히고 결선 투표 없이 경선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호남에서의 대승을 동력으로 전국적으로 '문재인 바람'을 일으켜 안철수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 측에서는 지난 2002년 광주에서 노홍(노무현 바람)이 일어났듯이 2012년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친노(친 노무현) 세력에 의한 '분당의 약동'과 설침함이 호남 민심의 저변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호남 민심의 확고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선 주자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안철수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 구도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문 후보 진영에서는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진정성'을 담을 수 있는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역전극 계기=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로서는 호남지역 경선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여기서 밀린다면 결선 투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때문이다. 특히, 호남에서 패배는 대선 이후 손·김·정 후보의 정치적 미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손·김·정 진영에서는 호남지역 경선에 캠프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는다는 전략이다. 손 후보 측에서는 우선 전북 경선에서 승리를 이끌어 내고 광주·전남 지역에서 대역전의 드라마를 쓴다는 전략이다. 손 후보 측 관계자는 "호남에서 패배한다면 모두 영산강에 빠져 죽는다는 각오로 총력을 쏟고 있다"며 "손 후보의 진정성과 준비된 대통령의 자질을 호남 민심이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측에서도 호남지역 경선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친노 패권 세력과는 다른 진정한 노무현 정신에 충실한 후보인데다 미래지향적 정치적 비전을 갖춘 점을 호남 민심이 알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후보 측에서는 유일한 호남 주자인데다 타 후보와 비교되는 정책적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 호소에 나서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이 4·11 총선 비례대표 공천희망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연합뉴스

민주 공천헌금 사건 '희대의 사기극'?

정치권 "계좌송금 등 검찰 증거 허점 투성이"

박지원 대표는 그 시각 항공기 탑승 밝혀져

검찰의 민주 공천헌금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사건이 '희대의 사기극'인지 아니면 '실체적 진실'이 있는 사건인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현재 검찰 측으로부터 나오는 '공천 헌금'이라고 의심될 수 있는 사실은 구속된 양경숙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모씨 등이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박지원 원내대표를 발신자로 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점. 검찰은 또 양씨 관련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은 수취인 명단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이름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모두 아직은 '공천 헌금'의 증거로 내세우기에 허점이 많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우선, 공천헌금을 계좌로 부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 민주당 우상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헌금을 은행통장으로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비밀스럽게 해야 할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누군가 제 이름과 번호를 이용해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 대변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공천헌금을 계좌로 부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지지 통화내역을 전달했다. 당시 이씨는 "양씨가 박 원내대표를 얘기하며 돈을 받아갔다"고 말했다는 것이 우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씨가 전한 문자메시지에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박지원이 밀렸 습니다. 12번, 14번 확정하겠습니다. 이번 주 8개는 꼭 필요하고, 다음 주 쯤 10개 완료돼야 일이 스무스하게(부드럽게) 진행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우 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시각에 광주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해 있었다"며 해당 항공사의 탑승사실 조회까지 공개했다.

그는 박 원내대표와 양씨가 3000여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통화는 14번 정도 했다고 한다"며 "양씨는 문자메시지를 주로 이용하는데 박 원내대표가 모든 문자에 회신을 하다 보니 문자 교환이 많아 졌다"고 말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제주경선포 막판 1만여명 등록

김두관측 '타지역 유권자' 가능성 제기

모바일투표 공정성 논란으로 한 차례 경선 파행을 겪었던 민주통합당에서 김두관 후보 측이 '문재인 후보 측에서 제주 경선에서 기선을 잡기 위해 타지역 유권자들을 대거 제주도에 등록시킨 게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 선대위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제주 경선에서 선거접수 마감일에 약 1만여명이 한꺼번에 접수되면서 특정 후보가 초반에 기선을 잡기 위해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을 대거 제주도에 등록했다는 주장이 계속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이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27일 밤 선관위 미팅에서 주소지 확인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아직 접수업체가 주소지를 확인했는지조차 확인해 주지 않겠다"며 "계속해서 주소지 확인을 거부할 경우 특정후보 측이 다른 지역 거주자를 대거 제주도에 접수시켰다고 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대위는 또 제주 경선에서 기관처리된 선거인단이 1만340명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해 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쳐 선거인단에 가입해 놓고도 전화가 5번이나 걸려왔는데 이 많은 사람이 투표를 거부한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며 "이들이 왜 기관처리가 되었는지, 검증단을 통해 조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학규 선대위도 성명을 통해 "왜 많은 사람이 5번의 통화시도에도 응답을 하지 않았는지, 통화시도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선거인단 참여자의 거주지 주소는 정확하게 등 모든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와 연대전선을 폈다.

여기에 당 내에서는 민주당 모바일투표 관리업체가 한 후보 특보의 친형 소유로 돼 있으며 수의계약 형태로 일을 맡았다는 등의 말이 도는 등 모바일투표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홍행부진 민주 경선 안철수 등판 부르나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이 역동성 부족과 파행 등으로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출마 여부 및 시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아란 지지자들은 민주당에 약재가 터질수록 안 원장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만큼 지지율은 올라갔다. 더욱이 안 원장은 지난 4·11 총선 패배 등 민주당이 코너에 몰릴 때 정치 참여의 고민이 깊어졌다고 밝힌 점에서, 경선의 흥행 부진은 안 원장의 등판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재 안 원장의 출마시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민주당 경선이 끝난 이후인 추석 전후로 출마 선언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민주당 경선이 변수로 작용해 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최근 TBS 라디오에서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신상이나 정책 문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출마 시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안 원장은 최근 '조용한 행보' 속에서 지지자들의 세를 규합하는 작업도 벌이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금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같이할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뜻을 함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출마 선언 뒤 선거운동을 위해 캠프에 합류할 인사들을 확보하고, 안 원장의 최대 약점이 국정운영 능력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착수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과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 문제 등을 놓고 비관여론에 직면한 통합진보당과 확실한 선을 그어 대선 국면에서 중도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진보당과 결별 수순 밟나

대선 중도총 흡수 등 현실적 어려움 많아

민주통합당이 2010년 6·2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야권연대의 틀을 유지해온 진보 정당과 결별하기 위한 수순에 사실상 착수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과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 문제 등을 놓고 비관여론에 직면한 통합진보당과 확실한 선을 그어 대선 국면에서 중도

총 흡수하겠다는 포석이나 시기 등을 둘러싸고 이견도 적지 않아 조기에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파기 안건을 테이블에 올렸다. 지도부 차원에서 야권연대 파기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셈이다. 김현 대변인은 회의 후 국회 브리핑에서 "통합진보당이 혁신되길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라며 "이에 추후 더 깊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는 "이대로 통합진보당과 계속 야권연대를 이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데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geul and Hanja instructor training. It features the text '漢字·漢文指導師資格' and '研修生募集' along with a table of course details including dates, times, and fees for two different programs.

Advertisement for '수익성최상!' (Highest Profitability!) real estate services. It lists three types of properties: 1. Kizteamark Cafe, 2. Restaurant/Bar, and 3. Medical Center, each with detailed specifica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Landpia Real Estate Agent). It highlights '상가 임대' (Commercial Rental) and '수익성 부동산매매' (Profitable Real Estate Sale) services, providing specific details and contact numbers.

Advertisement for '경매투자 NPL물건 특수물건' (Auction Investment NPL Special Property). It lists three types of investment opportunities: 1. Auction participation, 2. Debt investment, and 3. Investment in auctioned property, with detailed descrip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못 받은 돈' (Money Not Received) legal services. It offers services like document review, court proceedings, and debt recovery, emphasizing '의뢰시 수수료없음' (No fee upon request) and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for Seil Shin.